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Mar. 29, 2026 (통권 1100호)



오늘의 말씀

“호산나 이후의 신앙”

[마 21:8~9]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찢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찢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 27:22~23]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오늘도 우리는 이 시리즈의 고정 선언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서론 ~ 본문은 같은 입술에서 “호산나”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겜옷을 길에 퍼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같은 도시에서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전혀 다른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호산나의 신자인가, 아니면 끝까지 따르는 제자인가?

본론

“호산나”는 기대였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현실로 다가온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마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원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산나”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결국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가 충돌하는 심각한 현상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지 않고 성도들을 소비자로 보는 시각으로 Consumer Centered Church를 추구하는 교회로 바뀌어 가는 현대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런 가파른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군중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 27:22~23]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군중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찬양하던 무리들이,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성령에 의해 정렬된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를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종려주일의 군중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았던 사람들,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선생”으로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요 6: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 고통을 제거해 주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경험에 기초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 6:53~5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 6: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요 6: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기적 때문에 모였지만, 진리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나를 채워주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 나를 만족시키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나와 하나가 되라”, “나와 함께 죽으라.”

그 순간, 군중은 깨닫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결국 거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호산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 기대가 담긴 환호였고, 며칠 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너진 기대에서 나온 분노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그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요구하시자 떠나버렸습니다(They followed Jesus for what He could give them, but they left Him when He demanded their lives).

신학적인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군중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를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옵니다. 참 제자는 군중이 떠난 자리에서도 남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요 6:66~68]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열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서 우리는 참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군중이 떠난 자리에서도 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호산나 이후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종려주일의 군중은 감정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신자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순간이 아니라 지속이며, 군중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 신앙은 “끝까지 따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서도 끝까지 따르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성경적 예증들을 봅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여인들입니다. 남자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마 27:55~56]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다음 요한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요한은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위탁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 19:26~27]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다음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졌습니다.

[마 27:57~60]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군중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 호산나 이후가 진짜 신앙입니다.

종려주일은 화려한 시작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험입니다. 호산나는  
누구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까지 남는 사람은 참  
제자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군중 속에서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군중이 떠난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기도 포인트

- A. 주님,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신앙을 주소서.
- B. 호산나 이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 C.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소서.
- D.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 E. 우리 교회가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